

인천아트플랫폼 [공고 제2013-23호] : [공고 제2013-17호], [공고 제2013-18호]건 관련 호 입니다.

2014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예술가 및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 선정공모 최종 합격자 발표

인천아트플랫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예술가 및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 선정공모 관련 하여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7.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인천아트플랫폼-최종합격자

1. 시각예술부문

가. 입주기간 1년(2014/03~2015/02) : 14명

NO.	접수번호	성명	출생년도
1	5201311040001	김성윤	1985
2	5201311080018	조현선	1981
3	5201311120044	조해준	1972
4	5201311120045	고영택	1973
5	5201311150072	김준	1976
6	5201311160078	방&리 (방자영, 이윤준)	1971
7	5201311180099	이수영	1967
8	5201311180118	김희연	1985
9	5201311180127	정승	1976
10	5201311190198	정지현	1983
11	5201311190205	노기훈	1985
12	5201311190267	양정욱	1982
13	5201311190271	백승기	1982
14	5201311190278	오재우	1983

나. 입주기간 6개월 : 4팀(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출생년도
1	2014-03~2014-08	5201311180107	최영	1984
2	2014-03~2014-08	5201311190319	김영빈	1980
3	2014-09~2015-02	5201311130052	윤지은	1982
4	2014-09~2015-02	5201311190208	ETC(이샘,전보경,진나래)	1980

다. 입주기간 3개월 : 7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출생년도
1	2014-03/04/05	5201311150071	Gregory Bae(USA)	1986
2	2014-03/04/05	5201311110038	Shin-young Park (New Zealand)	1975
3	2014-03/04/05 * 조정 중	5201311170090	Linda Havenstein(German)	1984
4	2014-06/07/08	5201311190257	Chung Ling Jolene Mok (Hong Kong)	1984
5	2014-09/10/11	5201311150074	Guy Konigstein (Austrian / Israeli)	1982
6	2014-09/10/11	5201311140057	Patrick Mohundro(USA)	1985
7	2014-09/10/11 (2014-12~2015-02 연장)	5201311180133	Romy Achituv(Israeli)	1958

2. 공연예술부문 : 3팀(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출생년도
1	2014-03~2015-02	5201311190249	그룹S.(김소은,전수진, 임선영)	1979
2	2014-03~2014-08	5201311190284	김성용	1976
3	2014-09~2015-02	5201311180131	박민선	1981

3. 문학·비평·연구 부문 : 5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출생년도
1	2014-03~2015-02	5201311190290	이대범	1974
2	2014-03~2015-02	5201311150066	이하람	1982
3	2014-03~2015-02	5201311190182	이설야	1968
4	2014-06/07/08	5201311190223	Chun Kwok (ahkok) Wong (Hong Kong)	1979
5	2014-06/07/08	5201311190260	Randy Gener(USA)	1967

□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최종합격자

	프로젝트 기간	접수번호	지원세부분야	성명	출생년도
1	2014-03/04/05	5A201311190019	시각예술 _ 회화,조각	공미선	1985
2	2014-06/07/08	5A201311170009	시각예술_영상 등	김기라	1974
3	2014-06/07/08	5A201311190017	시각예술_설치 등	김수미(Kim Soomi), 일본 도쿄 거주	1979
4	2014-09/10/11	5A201311050001	시각예술_ 회화,조각	배인숙	1975

※ 선발 부문은 신청부문 및 인터뷰 심사부문과 일부 조정되어 발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예정)

-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14:00~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선정된 입주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입주계약서 작성, 입주관련 일정 및 안내, 스튜디오 배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작성을 위한 도장
 - 문 의 처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담당자 032)760-1006 residency@ifac.or.kr
- * 향후 일정은 이메일을 통해 공지됩니다.

□ 심사평

1. 시각예술부문 1차

예술적 조타의 명시성과 열린 가능성의 확인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1차 심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국내외를 불문한 역량 있는 작가들과 다양한 작품형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회화는 물론 조각, 영상, 설치,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300여명을 넘나드는 출품 작가 수에 비례하듯 각기 다른 표현방식과 조형언어의 목표는 확실히 남다른 흥미를 유효하게 했다. 이는 얼터모던 시대의 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발견토록 하는 단초였다는 사실에서 매우 의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작가들의 작품에서 엿보이던 명료한 주제 의식과 다층적 해석의 여백, 시각성에 국한되지 않은 사유의 순환 등은 공간과 네트워크지원이라는 레지던시 특유의 장점이 덧대어질 경우 보다 깊은 변별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어쩌면 이러한 측면들이 본인을 비롯한 여타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주목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 아쉽다고 여긴 것은 작가는 다름에도 조형언어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흐름이 읽히는 작가들이 왕왕 눈에 띄었다는 것과, 화려한 시각적 수사에 비해 미학적 고찰이 수반되지 못한 사례, 그리고 일종의 트렌드에 발맞춘 외피적 양식의 수용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몇몇 작가의 작품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거나 내용적으로 완성도가 희미한, 자신만의 색깔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놓치고 있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 작가의 작품들은 예술성 및 조형성과 연관된 본질적인 논의를 스스로 숙지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음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비단 본 심사과정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대 한국 미술계 전반적으로 유사한 흔적은 발견되거나 때론 포괄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독창성의 부재, 자신만의 언어에 대한 깊은 사색이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전위적인 태도의 지향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대한 갈망과 미적 조타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 뚜렷한 자기철학을 상기시키는 작품들과 조우할 수 있었음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

한편 이번 레지던시 심의에서 상위에 링크되지는 못했으나 아깝고 좋은 작품들도 적지 않아 변별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많은 고심을 해야 했다. 비록 한정된 선정인원 탓이긴 해도 출품작가들 중 눈에 띄는 작품들에는 비전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는 향후 그들에게도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공되어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심사위원 박영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심사위원 박영숙(트렁크갤러리 대표, 사진작가)

심사위원 유진상(계원조형예술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심사위원 장진(대구대학교 교수, 작가)

심사위원 홍경한(월간아티클 편집장, 미술평론가)

1-1. 시각예술부문 2차

레지던시의 핵심은 공간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공간지원은 창작 공간 제공과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편의시설 제공과 같은 공간 환경을 말하며, 레지던시 운영의 기본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다른 레지던시와의 차별성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아질 수가 있겠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다른 레지던시에 비해 경쟁률도 치열하고 경쟁력도 높은 편이었다. 아마도 이런 공간 환경이며 프로그램 환경에서 그 원인이 찾아질 수가 있겠다. 이를테면 개항이나 화교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 구 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것과 같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한 역사적 특수성이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주제의식이며 내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백령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이런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특수성에 분단현실을 반영한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이 부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유로 창작역량과 함께 프로젝트 수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실제로도 일부 그런 작가들이며 팀이 선정돼 순수창작의 경우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유학파가 여전히 강세였지만, 특정학교출신의 편향이나 쏠림현상은 눈에 띄게 해소된 감이 있다. 출신학교가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숨어있던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장르로는 영상을 포함한 미디어와 설치미술, 커뮤니티아트, 다큐멘터리와 사진퍼포먼스, 소리예술과 개념미술의 경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 한국화든 페인팅이든 평면회화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감이 있다. 다른 레지던시도 그 형편이며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지만, 균형 있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 경향의 작가들을 유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고충환(미술평론가)

심사위원 고충환(미술평론가)

심사위원 이종구(중앙대학교 교수, 작가)

심사위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심사위원 장진(대구대학교 교수, 작가)

심사위원 홍경환(월간아티클 편집장, 미술평론가)

2. 공연예술부문

총 15개 예술단체(예술인)가 지원한 본 사업의 최종 선정자로 안무가 김성용, 퍼포먼스 그룹 S, 퍼포먼스 아트 창작자 박민선 3인을 선정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창작 스튜디오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프로그램 기획지원의 기회를 제공 받는 입주작가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중장기적인 창작 공간이 필요 시 되는 창작목표와 창작과제를 가지고 있는가?”이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가 스스로 중장기적인 창작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내고 있는가?”라는 지점이었다. 창작공간과 제작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빈곤으로 창작자들이 스스로 꿈꾸는 창작물을 제작해 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의외로 예술가를 위한 창작환경이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중장기적인 창작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예술가도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해당 입주 기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예술가를 선정하는데 집중하였다.

AIR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관인 일본의 교토조형예술대학과 3년간의 중장기적 교류제작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김성용의 경우, 교류대상인 일본 기관과 참여자가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에 정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레지던시 기간 중에 기관간 네트워크 등을 증진시키며 스스로의 창작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었다. 단, 한-일 양국간 상호 체류를 통한 공동제작의 성격상 지원신청서 상의 1년 지원 요청을 6개월로 축소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연간 계획 중 일본 체류기간과 한국 체류 기간을 잘 분리, 협의하여 한국에서의 제작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아트플랫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퍼포먼스 그룹 S의 경우,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아티스트 3인이 실험적 협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문래스튜디오와 같은 타 레지던시 시설을 활용해 보았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단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도 기 경험을 바탕으로 1년간의 협업과 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판단되며,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천’과 ‘아트플랫폼’이 주는 장소특정적인 정서적 영감이 새로운 형태로 작품 속에 투영되기를 바란다. 박민선의 경우, 태국관광열차와 같이 유니크한 퍼포먼스 아트 분야를 최근 신선하게 국내 예술계에 선보이면서 주목 받는 작가로, 6개월간의 입주기간 동안, 극장을 벗어난 퍼포먼스 수행, 기록 등의 신선한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신작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간 동안 타 장르 입주 예술가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특정 장르에 몰입되어 있지 않은 작업방식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우연(LIG문화재단 기획실장)

심사위원 이병훈(연극연출가, 국립극단 차세대 연극스튜디오 소장)

심사위원 우연(LIG문화재단 기획실장)

심사위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3. 문학·비평·연구 부문

공간은 실존의 토대이자 상상력의 베이스캠프다. 다양한 문화적 개성으로 무장한 예술가들을 선발해 개별창작 공간을 지원해 주는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았다. 청소년 문학, 에세이,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지원했다. 세 가지 선정 심사 기준을 엄격히 따랐다. 첫째, 그동안 수행해온 창작활동의 경력을 평가했다. 작품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가치를 최대한 고려했다. 둘째, 입주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 과제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와 급조된 과제를 분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셋째, 인천이라는 지역적, 공간적 특수성과 지원자 작품의 보편성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다. 심사를 하면서 두 가지 점이 아쉬웠다. 입주 기간 동안의 창작 기획안이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인접 예술장르(회화, 사진, 공연 등)와 심층횡단할 수 있는 협업의 길을 좀 더 치밀하게 모색하길 바란다. ■ 류신(중앙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류신(중앙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함태영(인천문화재단 인천한국근대문학관 과장)

>> 오시는 길



>> 시외버스 이용

인천행 시외버스 이용, 인천터미널 하차, 월미도 및 신포동 방향 시내버스 이용

>> 시내버스 이용

- 인천 중구청 정류장에서 하차 5번, 15번, 28번, 720번
- 인천역에서 하차 2번, 15번, 23번, 28번, 45번, 306번
- 신포시장에서 하차(중구청 방향으로 환승이용) 3-1A번, 4번, 6A번, 6-1A번, 6-1B번, 12번, 15번, 16번, 17-1번, 22번, 23번, 24번, 41번, 45번, 46번, 111번, 112번

>> 지하철 이용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5분 거리

>> 자가용 이용

- 서울방향에서 올 때

제 1 경인고속도로 이용 : 인천항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제 2 경인고속도로 이용 : 고속도로종점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이용 : 수송도로 - 청라지구 - 현대제철 - 월미방향 - 인천역 - 하버파크호텔

- 수원방향에서 올 때

영동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경기북부지역에서 올 때

동두천 - 의정부 - 송추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파주-자유로 - 일산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 주차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단지 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